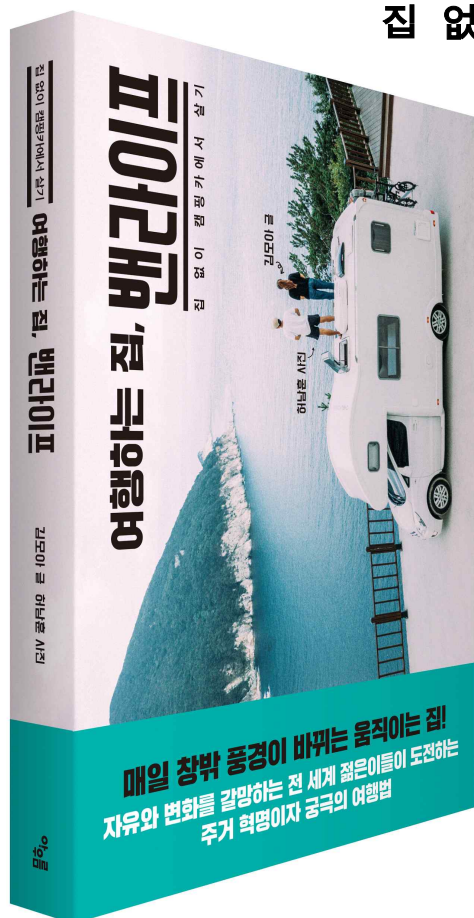


여행하는 집, 밴라이프

집 없이 캠핑카에서 살기



김모아 글, 허남훈 사진

매일 창밖 풍경이 바뀌는 움직이는 집!

자유와 변화를 갈망하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도전하는
주거 혁명이자 궁극의 여행법

큰 집에 살아야 행복도 커지는 것은 아니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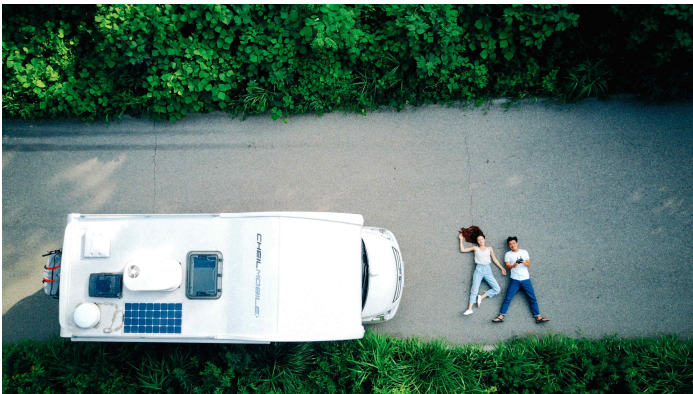
아파트 대신 캠핑카에 사는
별난 부부의 일상과 모험

여행하듯 살아가고, 살듯이 여행한다 이것이 바로 밴라이프!

최근 미국과 유럽 등의 인스타그램 유저들 사이에서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 주제어가 있다. 해시태그 밴라이프 #vanlife 밴라이프. 집 없이 캠핑카 한 대에 침실과 살림을 꾸려놓고, 여행과 일상을 같이 해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인스타그램에서 ‘밴라이프(vanlife)’를 검색하면 집을 버리고 캠핑카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올린 250만 개가 넘는 사진과 후기를 볼 수 있다.

단순히 ‘캠핑카 타고 여행이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캠핑카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며, 매일 여행하듯 살아가고 살듯이 여행하는 사람들.

여기, 한국에서 ‘밴라이프’에 도전한 부부가 있다.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고 살아가며, 이따금 함께 여행하고 여행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던 젊은 부부는 생각한다.

‘어른들의 말대로 우리도 얼른 아이를 낳고 대출받아 집을 넓혀가야만 하는 걸까? 그렇게 살면 행복해지는 걸까?’

‘여행은 즐거운데 일상은 너무 고단하다. 여행지로 출발할 땐 좋은데, 며칠만 지나도 집밥이 그립다. 여행 가려면 돈을 벌어야 하는데, 막상 일에 치여 여행 갈 시간이 없다. 여행과 일과 생활의 이 공고한 경계를 와르르 무너뜨릴 순 없을까?’

남편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는 언젠가 캠핑카를 타고 원 없이 여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지금 못하는 일을 나중에, 죽기 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 그토록 간절하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것.

이들은 집안 가득 들어차 있던 가구와 책과 옷과 각종 짐을 버리거나 지인들에게 나눠주고 살던 집을 팔아버린 뒤 캠핑카 한 대를 구한다. 캠핑카는 좁기에 집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이곳에서 정말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 슬쩍 두렵기도 하다.

그러나 좁은 밴 안에는 욕실, 거실, 침실, 부엌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간이 모두 갖춰져 있고, 이곳에서 이들은 꿈꿔왔던 새로운 삶을, 여행을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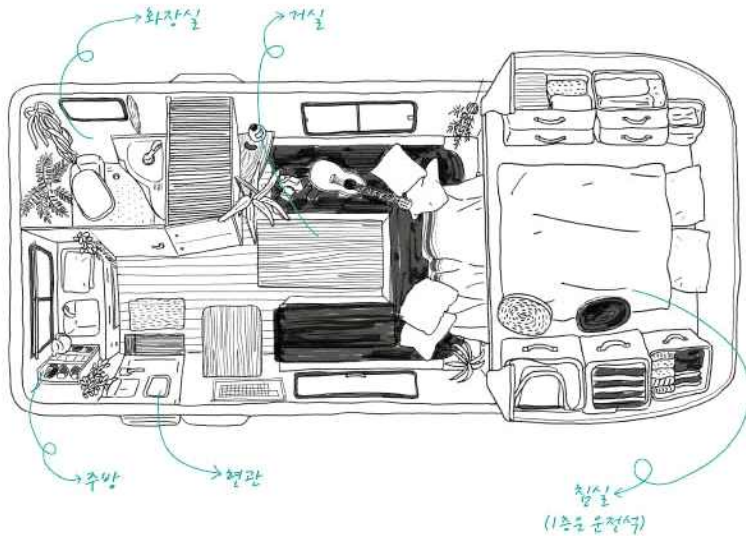
달리다가도 어디서든 밴을 세우면 그곳이 그날의 여행지가 되었다. 바닷가에서도 일상을 미뤄두는 것에 대한 걱정과 부담 없이 아름다운 풍경을 액자 삼아 노트북으로 부지런히 일했다. 일을 마치면 슬리퍼를 꿰고 나가 밤의 해변을 즐겼다. 밴 문을 열어젖히면 어디나 여행지였고, 그곳에서 다시 신발의 흠만 툭툭 털고 밴 안으로 들어서면 집이 되었다.

우리는 집을 엮고 다니는 거북이들이었다. 걷다가 고개만 쪽 넣으면 안락한 거처가 생기는 거북이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니 목적지만 정하면 그만이었다.

문밖을 나서기만 하면 새로운 세상이니까. _본문에서

불편함조차 낭만이 되는 집

세상을 향해 뻗은 길 위에 세운 '여행하는 집'



전국을 내 집 마당 삼아 살아가고, 매일 창밖 풍경이 바뀌는 이 '움직이는 집'에서는 하루하루가 새롭고, 물을 채우고 화장실통을 직접 비워야 하는 불편함조차 낭만이 된다.

이 책에서는 '밴라이프'를 준비하고 실현해나가는 이들 부부의 치밀한 준비 과정과 여행기, 길 위에서 생각하고 발견한 주거와 여행, 결혼과 삶에 대한 작은 철학들을 담는다. 김모아 허남훈 커플은 2017년 3월 17일 밴라이프를 시작한 이래, 7만 5천여 장의 사진을 찍으며 밴과 자신들의 이야기story를 성실하게 기록했다. 이 기록은 실로 '길 위의 역사History'라 할 만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캠핑카에서 보내는 동안 이들은 날씨와 계절을 온몸으로 느꼈고, 우리나라의 찬란한 자연 풍광 속에 멈춰선 흰 밴과 그 속에 깃들여 사는 자신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이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밴라이프 다이어리'를 써나가면서 기억하고 기록한, 좁은 공간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에피소드와 매일의 모험담도 이 책에서 낱알이 볼 수 있다.

최소한의 집만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에 무엇을 사고 무엇을 내다버릴지 꾸준히 논의해가며 심플한 삶을 유지하고, 눈부신 가을의 억새밭이 창밖에 펼쳐져 마음이 설렐지라도 이내 노트북을 켜서 그곳을 '억새밭 사무실'로 만들어버리는 이 부부의 삶은, '미니멀라이프'와 '디지털노마드'를 동시에 시도하는 대안적인 삶의 관점으로 봐도 흥미롭다.

‘캠핑카에서 살기, 밴라이프’는 지금까지 여유 있는 중장년층들의 로망으로만 여겨져왔다. 그러나 **평범한 직장인이 수도권에 내 집 한 칸을 얻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고 빚을 끌어안은 채 야근하고 죽도록 일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밴라이프’는 새로운 세대의 삶의 방식이자 대안적인 주거 형태가 될 수도 있음을 이 부부는 실험하고 증명해낸다.**

김모아 허남훈 부부는 어딘가에 서명할 일이 있으면 늘 이런 문장을 덧붙여 쓴다고 한다.

‘오늘도 내일도 다시없을 마지막.’

만약 오늘, 지금이 당신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당신은 창밖에 어떤 풍경을 걸어두고 싶은가?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공간에서 먹고, 자고, 살고 싶은가?

‘밴라이프’는 인생이라는 긴 여행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눈앞에 두고 살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 본문에서

*그런 어른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젊은 시절에는 노후를 대비한답시고 젊음을 양보하고, 노인이 되어서는 젊은 날을 후회하거나 질투하며 그때가 좋았지, 혀를 차는 그런 인생은 살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버킷리스트’의 정의를 새로 써보기로 했다. 버킷리스트란 죽기 전에 치러야 할 인생의 밀린 과제가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언제 죽을지 모르니 간절히 하고 싶은 일은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였다. 우리는 허감독의 버킷리스트인 캠핑카로 여행하기, 밴라이프를 바로 실천하기로 결심했다. (12쪽)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지금 하면서 살고 싶었다. 오늘을 희생해 다가올 내일이 아무리 안락하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고단하고 불행한 시간이 더 길다면, 우리는 그것을 차마 행복이라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15쪽)

*밴라이프를 시작하기 몇 달 전부터 주방 식기나 그릇을 주변에 나눠주고 코펠로 밥을 해 먹었다. 우리는 무거워진 삶을 다이어트하는 중이었다. (...) 구석구석에 붙어 있던 군더더기를 덜어냈다. 삶이 점점 건강해지고 있었다.(27쪽)

*우리에게 밴은 단순히 여행도구가 아니다. 사는 공간이고, 쉬는 공간이고, 일하는 공간이다. (49쪽)

*흔히 여행중에는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흥청망청 돈을 쓰고, 일할 때는 아등바등 돈을 모은다. 우리는 밴라이프를 이어가면서 그런 생활방식도 무너뜨리고 싶었다. 잘 모으고 꼭 필요한 것을 고민하여 잘 쓰며 여행해보기로 했다. 살아보기로 했다. 밴 안에서 노트북이 후끈후끈해질 때까지 일하다가도 문득 밴의 창문을 열어젖히고 맛있는 와인 한잔쯤 기꺼이 우리 자신에게 선사할 수 있는 여유를 품으며 살기로 했다. 여행자이면서 생활자이기에 소비와 저축의 균형을 잘 잡는 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미션이자 숙제가 될 것이었다. (53~54쪽)

*첫날밤, 생각지도 못한 곳에 허감독이 빔프로젝터를 달았다. 카메라 집게 거치대가 훌륭한 극장 설비가 되어주었다. 조수석 뒤편 창문 덮개에 빔을 쏘고, 거실 소파를 침대로 만들어 영화를 보았다. 차창 너머로 멀찍이 스크린을 보는 자동차극장 말고, 우리만의 진짜 자동차극장이 탄생했다. (72쪽)

*밴라이프가 특히 좋은 건, 보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일 걱정, 다시 돌아올 걱정 없이 언제든지 어디로든 달려갈 수 있다는 점이다. 생각해보면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 것이었다. 절친한 사람과도 그럴 때가 있다. ‘조만간 만나요’ 라는 말과 함께 헤어지고 지키지 못했던 술한 약속을 나는 밴라이프를 하는 동안 반성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먼저 달려가야지.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시는 ‘바빠서’ ‘멀어서’ 라는 막막한 핑계를 대진 말아야지. (95쪽)

*문을 열면 판 세상. 그것을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이었다. (114쪽)

*밴라이프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번개처럼 깨닫게 해준다. 전기, 수도, 난방, 정화조 등 생활의 편의시설은 누군가의 노력과 역할에서 오는 것이었음을 실감하게 한다. 메마른 저수지는 자연이 주는 만큼 우리가 돌려주지 못한다면, 곧 인간이 당연하게 받아왔던 것을 받지 못하게 될 때가 올 것이라 예고하고 있다. 인간에게 퍼부어주던 자연이 빠른 속도로 등을 돌리고 있다. 두려워해야 할 일이다. (148쪽)

*선이 가뒀준 자연을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림이 된다, 움직이는 그림. 시간이 아깝지 않다. ‘어느새 노을빛이 깔릴 테지. 어느새 짙은 어둠이 깔릴 테지.’ 가장 예쁠 때 가장 오래 봐둔다.

밴에는 창문이 많다. 운전석에 하나, 조수석에 하나, 병커 침실 양옆에 둘, 거실에 둘, 주방에 하나, 욕실 겸 화장실에 하나, 끝으로 출입문에 세로로 길게 난 창 하나, 거기에 천장에 난 선루프까지 총 10개다. 같은 길을 달려도 다른 위치에 달린 창문 덕분에 다른 10개의 장면이 담긴다. 그 덕에 그냥 길에 불과했던 곳들이 창문에 담겨 그림으로 다시 태어난다. 밴라이프의 가장 큰 즐거움은 매일 창밖 풍경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42쪽)

*밴라이프는 엄청난 크기의 낭만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의 불편함 역시 가지고 있다. 전기 등의 도시설비가 없는 밴에서 이 ‘불편함’ 들을 아날로그식으로 처리해내는 일은 밴라이프의 묘미 중 하나다. (297쪽)

*줄을 서서 들어와야 한다. 줄을 서서 나셔야 한다. 신발을 다 신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다 벗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고 기다려주기. 밴에 사는 건, 그런 과정들 사이에 숨겨진 낭만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이다. (305쪽)



■ 글_ 김모아

전 뮤지컬배우, 현 작가.

2000년부터 <록키 호러 쇼> 등 다수의 뮤지컬에 출연했다. 2010년 뮤지컬 <금발이 너무해>를 끝으로, 배우에서 작가가 되었다. 현재 허남훈 감독과 공동작업을 하며, 뮤직비디오 및 CF 스토리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_ 허남훈

뮤직비디오 감독.

남태현의 <더러운 집><Hug me>, 가인·제프 버넷의 <Pray>, 브라운아이드걸스의 <어쩌다><My style>, 유승우의 <더>, 정진운의 <Will>, 어반자카파의 <둘 하나 둘><미운 나><위로>, 안녕바다의 <알각><그곳에 있어줘> 등 다수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했다. 아이유의 <분홍신>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다.



김모아 허남훈은 '커플의 소리'라는 이름으로 여행과 일상의 순간에서 받은 영감을 책, 음악, 영상으로 기록한다. 지은 책으로 『커플의 소리 in Europe』이 있다.

두 사람은 2017년 3월 17일부터 집을 벗어나 캠핑카에서 살고 일하며 전국을 여행했다.

인스타그램 @lesonducouple

유튜브 채널 커플의소리

블로그 <https://blog.naver.com/namhoooon>

홈페이지 <https://www.lesonducouple.com>

지은이 | 김모아 허남훈

발행일 | 2018년 3월 15일

쪽 수 | 328쪽

판 형 | 140*200/ 무선

값 | 16800원

ISBN | 978-89-546-5059-5 03810

담 당 | 이연실(031-955-2651, pro@munhak.com)